
정책참고자료

2019-8호

섬기는 일하는 가까운
강원도의회

의회사무처
(수석전문위원실)



목 차



1 행정안전부

강원도 지역경제 살리기·맑은 하늘 지키기, 중앙·지방이 함께 한다

- 행안부, 강원도에서 「제39회 중앙·지방 정책협의회」18일 개최 -

4

2 국민권익위원회

‘학교 밖 청소년’들의 자원봉사활동 신청 기회 많아지고 쉬워진다

- 청소년 자원봉사자 모집 설명서·시스템 개선토록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에 권고 -

7

3 중소벤처기업부

중기부, 강원도 산불 피해 소상공인 재해자금 대출한도 확대

9

4 교육부

지역 중심 돌봄생태계 구축을 위한 법정부 공동추진협의회 개최

- 유은혜 부총리, 은종일 돌봄체계 ‘법정부 공동추진협의회’ 주재 및 현장 방문 -

11

5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공기관 수요 맞춤형 드론 개발을 통한 무인이동 체 분야 혁신성장 지원 추진

- 다부처 협업을 통한 연구개발 성과물의 공공혁신조달 연계 지원 -

17

6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 강원 지역 관광 활성화 지원

- 정부·공공기관 행사 등을 강원도에서 개최 추진 -

21

7 농림축산식품부

사랑담은「농업인 행복버스」농촌지역 곳곳으로 출발

- 양한방 진료, 장수사진, 농기계 무상점검 등 찾아가는 서비스 시작 -

23

8 환경부

- 한국수자원공사·춘천시, 소양강댐 등 물 분야 상생협력** ————— 27
- 춘천시 물 관련 현안과 수열에너지 클러스터 조성사업 등 협력 -

9 고용노동부

-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지원을 위한 「중앙 컨설팅팀」 출범** ————— 30
- 정규직 전환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컨설팅) 제공, 갈등 조정·중재 -

10 여성가족부

- 청소년복지시설 종사자 전문교육을 통해
위기청소년 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서비스 강화** ————— 35
- 2019 청소년쉼터·자립지원관·회복지원시설 종사자별 특화교육 실시 -

11 국토교통부

- 15일부터 어린이·고령자 맞춤형 “찾아가는 교통안전 교육”** ————— 38
- 지난 3년간 유치원·노인복지관 등 찾아 54만 명 교통안전교육 실시 -

12 해양수산부

- 옥빛 봄바다 넘실... 체험거리 가득한 강원도 어촌여행** ————— 43
- 해수부·어촌어항공단, 강원도 지역 추천 어촌체험휴양마을 5선 소개 -

강원도 지역경제 살리기 · 맑은 하늘 지키기, 중앙 · 지방이 함께 한다

- 행안부, 강원도에서 「제39회 중앙 · 지방 정책협의회」 18일 개최 -

-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강원도 산불 피해 수습과 봄철 산불 예방,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머리를 맞댄다.
- 행정안전부는 18일 오후, 강원도 속초에서 「제39회 중앙-지방정책 협의회」를 개최한다.
 - 진영 행정안전부장관 취임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이날 회의에는 진영 장관을 비롯하여 최문순 강원도지사, 김연명 청와대 사회수석 등 정부 주요인사와 17개 시·도 부단체장이 참석한다.
 - 행정안전부는 강원도가 산불로 인해 관광객 감소, 경기 위축을 겪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정부와 지자체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앞장서자는 차원에서 회의 장소를 강원도 속초로 정했다고 밝혔다.
- 이날 회의에서는 첫 번째 주요 안건으로 ‘산불 피해 지원 및 예방 대책’이 논의될 예정이다.
 - 먼저, 행정안전부에서 ‘강원도 산불 피해 수습 현황’에 대해 발표 하고, 이어 산림청에서 ‘봄철 산불 예방대책’에 대해 발표한다.
 - 특히 산림청은 4월 들어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산불이 5월까지도 산발적으로 계속될 수 있다고 전망하면서, 각 지자체가 산불 예방과

조기진화를 위해 산림청과 긴밀하게 협조하여 줄 것을 요청할 예정이다.

- 아울러, 경북, 경남 등 지자체에서도 강원도 산불피해 지원대책을 발표하고 산불 예방 노하우를 나누는 차원에서 각 지역에서 추진하고 있는 산불 예방 대책을 공유한다.

- 두 번째 주요 안건인 '미세먼지 저감 대책'과 관련해서는 환경부와 지자체가 올 들어 지속된 유례없는 고농도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대책에 대해 논의한다.

- 환경부에서는 각 지자체에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단속, 미세먼지 관련 예산집행, 비상저감조치 대응체계 구축,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관련 행정절차 추진 등에 대해 협조를 구할 계획이다.

- 경기, 충남, 전북 등 지자체에서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항을 발표하고, 현장의 의견을 환경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 그 밖에 생활SOC 추진단에서 생활SOC 사업에 대해, 행정안전부에서 지역일자리사업 추진에 대해 지자체의 관심과 협조를 요청한다.

- 한편, 이날 행안부는 강원 특산품을 구매하여 지역경제에 도움을 주고, 시·도 부단체장들도 각자 화재 피해지역을 찾아 식사를 하거나 자율적으로 특산품을 구매하는 등 강원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노력도 함께 할 예정이다.

- 진영 장관은 “지난 4월 6일 강원도 산불피해 현장에서 행안부장관으로서 임기를 시작한 이후 12일 만에 다시 강원도를 방문하였다”며, “각 지자체가 피해주민 지원과 강원도 경기침체 극복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청했다.
- 또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산불과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중앙-지방 구분 없이 함께 노력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 김연명 청와대 사회수석도 “중앙부처와 지자체가 합심하여 산불 피해로 고통받고 있는 강원도를 지원하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미세먼지도 확실히 줄여나가자”고 덧붙였다.

‘학교 밖 청소년’들의 자원봉사활동 신청 기회 많아지고 쉬워진다

- 청소년 자원봉사자 모집 설명서·시스템 개선토록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에 권고 -

- 학교에 다니지 않는 ‘학교 밖 청소년’*들이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싶어도 가까운 곳에 지원을 받아주는 기관이 없어 자원봉사활동을 하지 못하거나 먼 곳까지 가야 하는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 학교 밖 청소년 : 초등학교·중학교 등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입학한 후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취학의무를 유예한 청소년,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서 자퇴하거나 진학하지 않은 청소년 등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학교 밖 청소년들이 자원봉사활동을 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청소년 자원봉사활동 지원시스템’의 사용설명서와 시스템을 개선하도록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에 권고했다.

-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은 공공도서관·요양원·혈액원 등 각 기관이나 단체의 청소년 대상 자원봉사활동의 모집과 지원을 돕기 위해 ‘청소년 자원봉사활동 지원시스템’을 운영 중이다.

* e청소년(www.youth.go.kr, 청소년 활동 정보서비스)시스템의 ‘청소년 자원봉사 DOVOL’

청소년들의 자원봉사는 체험활동과 입시준비 등을 위해 하는 것으로,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뿐 아니라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도 필요하다.

하지만 봉사활동 지원을 받는 상당수 기관·단체에서 현재 시스템에서 학교 밖 청소년을 모집할 수 있음에도,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 위주로 모집하고,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모집 노력은 미흡한 실정이다.

※ 봉사활동 모집기관을 각 광역단위별로 20개(세종은 8개)씩 무작위로 확인한 결과, 조사대상 총 328개 중 학교 밖 청소년을 모집하지 않는 기관은 74.1%인 243개에 이른다(3월 초 봉사활동 모집기관을 대상으로 시스템에서 조사)

이 때문에 학교 밖 청소년의 봉사활동 신청이 어렵고 불편하다는 민원도 제기되고 있었다.

- 검정고시생인데, 대입 준비로 봉사시간이 필요해서 청소년 봉사활동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가까운 모집기관을 검색했더니, 학교 밖 청소년은 모집을 하지 않았음. 학교 밖 청소년이 재학생에 비해 적기는 하지만 봉사활동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해 주면 좋겠음(2018년 9월 국민신문고)

□ 이에 국민권익위는 각 기관이나 단체에서 자원봉사자 접수 시 학교 밖 청소년을 적극 모집하도록 시스템 사용설명서 등에 반영하고, 봉사활동 모집기관에서 모집 등록 시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하는 봉사활동에는 학교 밖 청소년이 필수적으로 포함되도록 올해 12월까지 시스템을 개선하도록 권고했다.

□ 국민권익위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학교 밖 청소년들이 봉사활동을 지원할 때 불편함이나 소외감을 느끼지 않아야 한다.”며, “국민권익위는 앞으로도 자칫 소외될 수 있는 사람들이 발생할 수 있는 분야의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중기부, 강원도 산불 피해 소상공인 재해자금 대출한도 확대

- 산불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위한 재해자금의 지원한도를 2억원으로 확대하고 대출기한도 7년으로 연장
- 중소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는 강원도 산불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지원하는 재해자금의 지원한도를 7천만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하고 대출기간도 5년에서 7년으로 연장키로 하였으며, 지원금리도 2.0%의 고정금리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또한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재해특례보증 보증수수료율은 0.1% 적용받게 된다.
- 이번 조치는 박영선 장관이 4.9일 산불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소상공인 지원자금의 대출한도와 상환기간을 확대 검토하겠다” 것에 따른 것이다.
-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은 해당 시군구에서 재해확인증을 발급받아 가까운 은행으로 자금신청을 하면 된다.
- 중기부는 강원도 산불피해 현장기동반을 영동사무소에 설치하고 현장상황 실시간 모니터링 및 당사자 소통강화를 위해 피해기업, 중기부 간 1:1 맞춤 ‘전담 해결사’ 배치·밀착 지원하여 피해복구 지원을 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가. 사업목적

- 재해·단기침체 및 위기극복 등 긴급한 자금소요를 지원하여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영업기반 조성을 지원

나. 용자규모 : 소상공인경영안정자금(19. 1조 2,700억원) 예산 내에서 활용

* 재해 발생으로 인한 소요 예산의 추산이 어려워 용자규모 미정

다. 신청대상

- 재해 확인증을 발급받은 소상공인

* ①매년 발생가능성이 높은 집중호우, 태풍, 폭설 등으로 피해를 입은 재해 소상공인 ②예측하기 힘든 구제역, 조류독감, 은행부실, 대형사고 등으로 피해를 입어 긴급지원이 필요한 경우로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인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소상공인

라. 용자범위

- 자연재해 또는 「재해 중소기업 지원지침」(중소벤처기업부 고시)에 따라 지원이 결정된 인적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재해소상공인의 직접피해 복구비용

마. 용자조건

- 대출금리(고정금리) : 연 2.0% 고정금리 적용
-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대출한도 : 업체당 7천만원 한도
- 용자방식 : 지방자치단체가 자금 신청·접수와 함께 재해 소상공인의 확인을 통해 용자대상 소상공인을 결정한 후 금융기관(대리대출)을 통해 대출

지역 중심 돌봄생태계 구축을 위한 범정부 공동추진협의회 개최

- 유은혜 부총리, 온종일 돌봄체계 ‘범정부 공동추진협의회’ 주재 및 현장 방문 -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유은혜)는 4월 10일(수) 서울 도봉구 방아골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운영을 위한 ‘범정부공동추진협의회’를 개최했다.
 - ‘범정부 공동추진협의회’는 돌봄서비스 확산에 필요한 범정부 차원의 제도 개선과 부처 간 정책조정, 공동사업 발굴을 추진(‘17.9.~)하고 있으며,
 - 돌봄 기능을 직접 수행하는 현장과의 소통을 위해 기초자치단체장을 포함하여 협의회로 개편(‘19.3.18.)되어,
 - 이번 회의부터 관련 부처 및 광역 지자체와 함께 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기초 지자체장이 참여한다.
- 이번 협의회는 유은혜 부총리가 처음으로 협의회를 직접 주재하고 「2019년도 온종일 돌봄 지원 계획(안)」 및 「지자체 중심의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을 위한 개선 방향(안)」에 대해 논의했다.
 - 여기에서 정부혁신 핵심과제인 지역사회 중심 돌봄생태계 지원 방안 등을 적극 모색하고 그 중요성을 강조했다며,
 - 이어진 ‘방학2동 별별 키움센터*’ 방문을 통해 돌봄 활동에 직접 참여하여 돌봄교실 아이들과 이용 소감을 나누었고,

-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사업 운영 현황 및 현장의 애로사항 등을 청취했다.

* '18년 7월 방아골종합사회복지관 내에 학부모, 마을교사, 지역주민들이 함께 마을돌봄 전용 공간을 마련하여 아이들의 성장과 배움을 지원(동아리 활동, 마을학교 프로그램 참여 등)

- 이날 논의할 「2019년도 온종일 돌봄 지원 계획(안)」 및 「지자체 중심의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을 위한 개선 방향(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안전 주요내용

□ 온종일 돌봄 서비스 제공 확대

- '18년에는 온종일 돌봄을 36만 명 달성하였으며, '19년도에는 40만여 명 공급 예정으로 목표(37.2만 명) 대비 2.8만여 명 초과가 예상된다.
- 학교 돌봄은 '18년에는 목표치 25.4만명을 상회하여 26.1만 명 이용하였으며, '19년에는 돌봄교실 1,500여 실을 늘려 29만 명에게 돌봄 서비스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 마을 돌봄은 '18년에 목표치 9.2만명을 상회하여 10.16만명이 이용하였고, '19년에는 다함께 돌봄 150개소와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20개소 확충 및 지역아동센터를 집중 지원하여 11.04만 명에게 돌봄서비스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 지역사회 중심으로의 돌봄 연계 강화

- 지자체를 중심으로 지역여건에 맞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선도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정책포럼, 성과보고회 및 우수사례 홍보 등을 통하여 그 간의 성과*를 공유·확산하며,

* 활용가능교실 이용, 도서관·아파트 유헤공간 등 지역 공공시설 활용 등

- 지역(마을)단위의 돌봄 공급 기관을 파악하여 돌봄 서비스를 연계·안내하고, 돌봄 운영의 다양한 사례 등을 발굴·확산 하는 등 돌봄 수요를 흡수하기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 지자체 중심의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 방안 논의

- 지역 내 돌봄 기관 간 연계를 위한 지역돌봄 협의체 운영 및 상호 소통 기회 확대를 위한 다양한 정보 교류 방안 등 각 지자체의 적극적인 역할에 대해 논의하는 한편,
- 학부모의 이용 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온라인 신청 방식을 도입을 검토하고, 돌봄 공간의 원활한 확보를 위한 관계부처 협업을 강화 하는 등 마을 돌봄을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 방안을 강구 할 것이다.

□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온종일 돌봄 서비스의 확대와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는 학교와 마을의 연계를 강화하고 돌봄 생태계 구축에 지역이 중심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며,

- “국가가 모든 아이의 안전하고 따뜻한 돌봄을 받을 권리를 보장 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하여 빈틈없는 돌봄체계 구현을 통한 포용국가 실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란다.”라고 밝혔다.

【붙임】범정부 공동추진협의회 개최 계획(안)

【참고1】범정부 공동추진협의회 구성 현황

【참고2】부처별 돌봄서비스 현황

1. 회의 개요

- (일시/장소) '19. 4. 10.(수) 14:30~16:00 / 방아골종합사회복지관
※ 방학2동 별별 키움센터(방아골 종합사회복지관 내) 현장방문 병행
- (참 석 자) : 총 9명
 -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주재)
 - 보건복지부 차관
 - 행정안전부·여성가족부 실장, 세종시 부시장 및 부교육감, 경기도 행정1부지사 및 제2부교육감,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장(서울도봉구청장)

2. 주요 안건

- 2019년 온종일 돌봄 지원 계획(안)
- 지자체 중심의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을 위한 개선 방향(안)

3. 회의 일정(안)

시 간(90')		내 용		비고	
14:30		영접(1층 정문)		구청장, 관장	
14:35~15:35		1부 : 범정부 공동추진협의회			
14:35~14:44	9'	○ 개회 및 참석자 소개(3') ○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인사 말씀(3') ○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장 인사 말씀(3')		2F 강당, 사회: 현장지원단 부단장	
14:44~15:35	51'	○ (보고) 2019년 온종일 돌봄 지원 계획(안) ○ (토의) 지자체 중심의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을 위한 개선 방향(안)		주재: 부총리님 보고: 사회정책 협력관	
		이동		2F 별별키움센터	
15:35~16:00		2부 : 센터 프로그램 참관			
15:35~15:55	20'	【별별 키움센터 프로그램 참관】 ○ 마음자라기 참여 및 기념촬영 ○ 과학놀이 참여 및 기념촬영		2F 별별키움센터 (강사: 권영미, 이희숙, 아동16여명)	
15:55~16:00	5'	○ 돌봄기관 관계자 격려 및 현장의견 수렴		2F 별별 도서관	

참고1

범정부 공동추진협의회 구성 현황

소속 (직위)	성명	주요경력	참석여부	배석
교육부 차관	박백범	 - 교육부 대학지원실장 - 교육부 기획조정실장 - 서울시 부교육감 - 세종 성남고등학교 교장		
복지부 차관	권덕철	 - 복지정책관 - 보건의료정책관 - 보건의료정책실장 - 기획조정실장		
행안부 실장	김현기	 - 경상북도 기획조정실장 -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정책관 - 경상북도 행정부지사 -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		
여가부 실장	윤효식	 - 여성가족부 기획조정실장 -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관 -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관		
세종 부시장	류순현	 - 자치행정과장 - 자치제도정책관 - 지방행정정책관 - 대전광역시 행정부시장 - 경남도 행정부시장		
경기도 행정1 부지사	김희겸	 - 경기도 경제투자실장 - 경기도 부천시 부시장 - 경기도 경제부지사 - 경기도 행정2부지사 - 행안부 기획조정실장		
도봉구 구청장	이동진	 - 국회의원 김근태 보좌관 - 제5대 서울시의회 의원 - 동북4구발전협의회 초대의장 - 민선 5,6,7기 도봉구청장		
세종 부교육감	류정섭	 -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상임위원 - 충청북도부교육감 - 교육부 교육안전정보국장		
경기 2부교육감	윤창하	 - 도교육청 학교혁신과장 - 의정부교육지원청 교육장 - 매현초 교장		

참고2

부처별 돌봄서비스 현황

□ 부처별 사업 현황

구분		교육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사업명		초등돌봄교실	다함께 돌봄	지역아동센터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시행시기		2004	2017	2004	2005
근거법		초·중등 교육과정총론 교육부 고시	저출산고령사회기 본법, 아동복지법	아동복지법	청소년기본법
지원 대상		초 1~6학년	만 6~12세 미만	만 18세 미만	초 4~중 3학년
지원기준 (소득)		맞벌이 가정 중심 (없음)	맞벌이 가정 중심 (없음)	취약계층 중심 (중위소득 100% 이하)	취약계층 우선지원 (중위소득 150% 이하)
지원 형태		무상 (간식비 등 일부 자부담)	이용료 자부담 (프로그램 참여 등 월 10만원 이내, 간식비는 실비 별도 부담)	무상 (소득별 이용료 5만원 이내 부담)	무상
운영 시간	학기	방과 후 ~ 17시 (일부 저녁돌봄 운영)	여건에 따라 자율	14 ~ 19시	방과 후 ~ 21시
	방학	여건에 따라 자율	"	12 ~ 17시	여건에 따라 자율
지원 내용		보호, 교육 및 일부 급·간식 지원	시간제돌봄, 프로그램 지원 등	보호, 교육, 문화, 정서지원, 지역사회 연계 등	전문체험활동, 학습지원, 자기개발활동, 특별지원 및 생활지원 (급식지원 포함)
운영 규모 ('18.)		12,398실 261,287명	17개소 320명	4,107개소 총 11만명 (초등 9.6만명)	260개소 총 1만명 (초등 5천3백명)
'19년 계획		13,000여실 (증 1,500여실) 29만명	167개소 (증 150개소) 5,000명	4,135개소 (증 28개소) 총 11만3천명 (초등 10만명)	280개소 (증 20개소) 총 1만명 (초등 5천4백명)

공공기관 수요 맞춤형 드론 개발을 통한 무인이동체 분야 혁신성장 지원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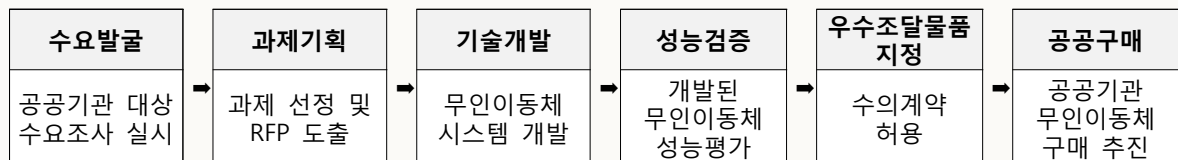
- 다부처 협업을 통한 연구개발 성과물의 공공혁신조달 연계 지원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 이하 ‘산업부’),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이하 ‘국토부’), 조달청(청장 정무경)과 함께 4월 19일부터 5월 21일까지 공공혁신조달 연계 무인이동체 및 소프트웨어(SW)플랫폼 개발사업의 신규과제를 공모(7개 과제, '19년 50억 원 규모) 한다고 밝혔다.

< 공공혁신조달 연계 무인이동체 및 SW플랫폼 개발사업 개요 >

- (사업목적) 공공기관에서 제기한 수요를 기반으로 무인이동체와 소프트웨어(SW) 플랫폼 개발 지원 및 공공조달 연계*

* 개발에 성공한 무인이동체에 대해 조달청 ‘우수조달물품’ 신청자격 및 심사특례 부여



- (기간·규모) '19~'23, 다부처 총액 418억원(국비, '19년 52.51억원)
- (주요내용) ① 공공임무용 무인이동체 통합기술관리 및 SW플랫폼 개발
② 하천·철도 관리 무인이동체 시스템 개발
③ 수요조사에 기반한 공공임무용 무인이동체 및 임무시스템 개발
- 이번 과제는 올해 정부혁신 역점과제인 혁신적 ‘공공구매조달’로 연계하여 관련 산업의 혁신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 특히, 정부의 8대 선도사업 중 하나인 드론 분야에서 연구개발 성과물이 공공조달로 연계되고 제도 개선과 관련 산업의 성장까지 막힘없이 이어질 수 있도록 관계 부처가 함께 모여 협업하였다.

구분	과 제 명	'19예산	규모	기간
1	공공임무용 무인이동체 통합기술관리 및 시험평가체계 개발	11억원	60억원	48개월
2	공공임무용 무인이동체 탑재 임무SW 및 지상운용 SW 개발	10억원	55억원	48개월
3	하천조사 및 모니터링 특화 드론 플랫폼 기반 하천관리 기술 개발	6억원	115억원	48개월
4	무인이동체 기반 접근취약 철도시설물 자동화점검시스템 개발	8억원	75억원	48개월
5	무인비행장치를 활용한 산불 대응체계 기술개발	5억원	17억원	24개월
6	소형 무인비행장치를 활용한 다중이용시설 사고예방 및 안전 확보 기술개발	5억원	17억원	24개월
7	우편 배송 라스트 마일 업무 혁신을 위한 무인비행장치 운영 기술 개발	5억원	17억원	24개월

※ 사업기간 및 예산은 상황에 따라 변동가능

□ (통합기술관리 및 SW플랫폼) 먼저, 공공임무용 무인이동체 성능의 시험평가를 지원하고, 시스템 개발 및 운용을 위한 소프트웨어를 개발한다.

- ① 각 과제의 성과물이 공공혁신조달로 연계될 수 있도록 사업을 총괄 관리하고, 공공임무용 무인이동체의 설계적합성, 기본성능, 임무성능, 환경 적합성 등을 위한 시험평가체계 개발을 지원한다.(‘ 19년 11억원, 4년)
- ② 또한, 공공임무용 무인이동체의 임무 소프트웨어 개발도구 및 운용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이를 관련 개발기업 및 공공기관 드론운용자에게 보급할 계획이다.(‘ 19년 10억원, 4년)

□ (국토교통 인프라 관리용 무인이동체) 이와 함께 하천 조사감시 및 철도 시설물 점검을 위한 무인이동체를 개발할 계획이다.

- ③ 하상 측정을 위한 수심 라이다(LiDAR) 탑재체 및 사물인터넷(IoT)을 활용한 하천 물리량 실시간 분석·예측 기술 개발 등 하천조사 전문 드론플랫폼 개발을 지원한다.(‘ 19년 6억원, 4년)
- ④ 또한, 현재 작업자에 의해서 수행되는 접근취약 철도구조물 정기 점검을 자동화시키기 위한 무인이동체 제어시스템 및 상태진단

자동화시스템 개발을 지원한다.(’ 19년 8억원, 4년)

- (수요맞춤형 무인이동체)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대상 수요조사 결과를 통해 선별*된 과제에 대해서도 2단계(경쟁형 연구방식)에 걸쳐 국내 중소기업에게 연구개발, 실증을 지원한다.

* 22개 기관 총 31건 수요 중 전문가 평가를 통해 중복성, 시장성, 기술개발 가능성,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3개 과제 선정

- ⑤ (산림청) 야간 시간대 산불 대응을 위한 드론(’19년 5억원, 2년)
- ⑥ (부산항보안공사) 항만의 실내·외 다중이용시설(국제여객터미널 등)에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드론(’19년 5억원, 2년)
- ⑦ (우정사업본부) 4G/5G 통신망을 이용한 우편물 배송 드론(’19년 5억원, 2년)

- 사업공고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과기정통부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공혁신조달 연계 무인이동체 및 SW플랫폼 개발사업’ 신규과제 공모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 과기정통부(www.msit.go.kr),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www.kaia.re.kr)

- 한편, 동 사업에 관심 있는 기업의 참여를 적극 독려하기 위해 4월 26일(금) 14시에 안양시 관양동에 위치한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에서 무인이동체 관련 기업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

- 과기정통부 고서곤 기초원천연구정책관은 “동 사업을 통해 국내 산업계에 안정적인 수요기반을 조성하고, 동시에 공공기관에 활용되어 얻은 운용실적을 바탕으로 무인이동체 관련 국내 기업들의 국내·외 시장 진출 기반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한다고 밝혔다.

붙임 : 기업 대상 사업설명회 개최(안)

□ 행사 개요

- (목 적) 공공혁신조달 연계 무인이동체 및 SW플랫폼 개발사업의 신규과제 공고에 따른 관련 기업 대상 참여 안내
- (일 시) ‘19. 4. 26(금), 14:00 ~ 16:00
- (장 소)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9층(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평촌역 2번 출구)
- (참석자) 과기정통부·산업부·국토부·조달청 담당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담당자, 기업 관계자 등 100여명
- (주요내용) 사업목적, 지원대상, 지원방식 등 사업개요 설명 및 과제 참여 지원 관련 유의사항 등 안내, 질의응답

□ 세부일정

시간	주요내용	비고
14:00-14:05 (5')	▪ 사업설명회 안내	
14:05-15:00 (55')	▪ 사업 및 과제별 개요, 추진일정 등 주요내용 설명	
15:00-16:00 (60')	▪ 질의응답	

□ 기대효과

- 관련 기업의 사업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과제 참여 지원 시 유의사항 등을 안내하여 기술개발 역량이 우수한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

문화체육관광부, 강원 지역 관광 활성화 지원

- 정부·공공기관 행사 등을 강원도에서 개최 추진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는 지난 4월 4일에 발생한 산불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강원 지역을 돕기 위해 피해를 입은 관광시설의 조속한 복구와 더불어 관광 활성화를 지원한다.

이는 이번 산불로 인해 직접적인 영향이 없는 강원 지역의 관광숙박시설도 예약이 취소되는 등, 관광객 감소 및 지역경제 위축이 우려되는 상황에 따른 조치이다.

문체부는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각종 행사, 공동 연수회(워크숍) 등을 강원 산불피해 지역(강릉시, 동해시, 속초시, 인제군, 고성군)에서 개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줄 것을 요청했으며, 관련 사항을 소속 공공기관과 관련 협회·단체로 전파해 강원 지역 관광 활성화를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문체부부터 솔선수범해 4월 12일(금)과 13일(토)에 개최될 예정인 조직문화혁신 워크숍을 시작으로 체육주간 워크숍 등 부서별 행사 장소를 강원 지역으로 변경했다.

또한, 수학여행 등, 강원 지역에서 개최될 예정이었던 행사가 취소되지 않도록 시도 교육감에게도 협조를 당부하고, 봄 여행주간[4월 27일(토)~5월 12일(일)]에 강원 지역에서 진행되는 지역 대표프로그램과 4월 29일(월)에 고성을 방문하는 특별프로그램 등, 관광객 유치를 위한 집중 홍보도 병행할

예정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산불 피해 지역의 조속한 복구를 지원하는 것은 물론이고, 관광시설에 대한 안전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관광객 감소 등으로 강원 지역의 지역경제가 위축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7

농림축산식품부

사랑담은 「농업인 행복버스」 농촌지역 곳곳으로 출발

- 양한방 진료, 장수사진, 농기계 무상점검 등 찾아가는 서비스 시작 -

《 주 요 내 용 》

- ◆ 농식품부와 농협이 공동으로 농촌 주민들에게 의료지원, 장수사진 등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농업인 행복버스' 발대식 개최
 - 일 시 : '19. 4. 12(금) 11:00 ~ 12:40
 - 장 소 : 충남 보령시 보령종합체육관
 - 주 최 : 농림축산식품부, 농협중앙회
 - 사업내용 : 무료 건강검진 및 진료, 장수사진 촬영, 문화공연, 농기계 무상점검, 법률상담 등

□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와 농협중앙회는 4월 12일(금) 오전 11시에 충남 보령시 종합체육관에서 개최하는 『농업인 행복버스』 발대식을 시작으로 올해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 『농업인 행복버스』는 농촌지역을 직접 찾아가 건강검진, 장수사진 촬영, 문화공연, 법률상담, 농기계 수리 등의 서비스를 무료제공하는 사업으로 2013년부터 추진하여 왔다.

○ 그동안 농식품부는 행복버스 사업을 통해 354개 지역, 13만 여명의 농촌 어르신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했다.

□ 농식품부는 의료와 복지시설 접근이 어려운 농촌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직접 찾아가서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

하는 농업인 행복버스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농촌은 도시에 비해 병·의원수가 8분의 1 수준*에 불과하며, 농촌주민의 50% 이상이 병·의원을 이용하기 위해 20~60분 이상 이동해야 하고 대중교통이 취약한 농촌에서는 이 또한 쉽지 않은 상황이다.

* 병·의원수 : 시 30,758개/ 군 4,087개('18, 보건복지통계연보)

* 의료기관 이용 편도 소요시간 : 20분미만(48.8%), 20~60분(42.5) 60분이상(8.7)

- 또한, 농촌지역의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이 43% 수준에 달하는 등 고령화율*이 높고, 농촌지역이 도시지역보다 독거노인 비율이 2배 이상 높아** 의료 및 복지에 대한 수요가 많다.

* 65세 이상 고령화율(농가/전국, %) : ('05) 29.1 / 9.2 → ('17) 42.5% / 13.8%

** 65세 이상 단독가구 비율('17) : 농촌지역(읍·면) 12.1%, 도시지역(동) 5.7%

- 오늘 행복버스 발대식에서는 남포면지역 관내 약 500여명의 어르신들께 건강검진, 장수사진 촬영, 시력검사와 돋보기 제공, 법률상담, 농기계 수리 등 다양한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한다.

- 우선 의료지원을 위해 자생한방병원에서 약 15명의 의료진이 참여하여 200명의 고령농업인에게 침·뜸 등을 시술하고,
- 쿤스트(KUNST) 스튜디오에서는 300명의 어르신들께 장수사진 촬영과 액자를 제작하여 집으로 배송하여 드린다.
- 점안 및 돋보기 지원을 위해 아이디어 도안점에서 300명의 어르신들께 시력검사를 실시하고 현장에서 돋보기를 선물해 드린

다.

○ 또한,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무료법률상담을 실시하고, NH네트웍스와 기아자동차에서는 농기계와 차량을 무상 점검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 농식품부는 농업인 행복버스에 대한 전국 농촌지역의 높은 수요를 감안하여, 올해에는 90개 농촌지역 4만여명의 어르신들께 다양한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 또한, 농촌지역의 복지 여건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2020년도에 행복버스 지원 지역과 서비스를 대폭 확대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 농식품부 이개호 장관과 농협중앙회 김병원 회장은 이날 행사에 참석하여 행복버스 관계자와 봉사활동 참여자들을 격려하고, “농촌 어르신들이 더욱 편안하게 생활하실 수 있도록 관계부처·기관과 협력하여 농촌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참고

『농업인 행복버스』 발대식 개요

- ◆ 농업인 대상, 의료·문화공연·장수사진 등의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
* 운영실적 : ('14) 47회 → ('15) 61 → ('16) 73 → ('18) 87 → ('19) 90회 (4만명)

1. 개요

- 일 시 : '19. 4. 12(금) 11:00~12:40
- 장 소 : 충남 보령시 보령종합체육관
- 주요내용
 - 2019년 『농업인 행복버스』 발대식
 - 의료서비스, 장수사진 촬영, 법률 상담, 차량정비 등
- 주요 참석자 : 김태흠 국회의원, 농협 회장, 충남도 부지사, 보령시장

2. 발대식 주요일정

시 간		주 요 내 용	비 고
11:00~11:35	35'	○ 2019년 농업인 행복버스 발대식	
11:35~11:55	20'	○ 현장 방문 및 봉사자 격려 * 의료지원 및 장수사진 촬영 등	
11:55~12:40	45'	○ 오 찬	

8

환경부

한국수자원공사-춘천시, 소양강댐 등 물 분야 상생협력

- 춘천시 물 관련 현안과 수열에너지 클러스터 조성사업 등 협력 -

- 환경부 산하 한국수자원공사(사장 이학수)는 춘천시와 4월 16일 오후 2시부터 춘천시청에서 ‘물 분야 상생협력 강화를 위한 상호 협약’을 체결한다.
- 이번 협약은 춘천시의 수량과 수질, 수생태계 전반의 현안에 대한 협력 방안을 마련하고 올해 정부혁신 과제인 범정부 협업 추진을 위해 추진되었다.
- 주요 내용은 한국수자원공사와 춘천시가 ‘상생협력 전담반’ 구성을 구성하여 ▲소양강댐의 친환경 활용 방안, ▲춘천시 호수 및 저수지, 하천의 수질 대책, ▲춘천시 지방상수도 기술지원, ▲가뭄철 산간지역 급수 대책, ▲수열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 조성사업 등에 대한 협력이다.
- 또한, 전담반을 상시 운영하여 협력사항 및 진행현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 특히 ‘수열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 조성사업’은 소양강댐에 저장된 물의 온도가 여름철에는 차갑고 겨울철에는 영하로 내려가지 않는 특성을 활용하여 냉난방 등에 이용하는 복합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 수열에너지는 일반 전기에 비해 저렴한 비용으로 냉난방을 운영할 수 있다. 따라서 많은 열이 나오는 대규모 데이터센터에서 냉각수로

사용된 온수를 농산물 재배시설, 지능형 도시 등에 재사용하면 원가를 절감하고 친환경 복합단지를 조성할 수 있다.

- 이학수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소양강댐의 경제적, 생태적 가치 향상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협력을 강화하여 춘천시민을 비롯한 국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물 관리 혁신을 실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물 분야 상생협력 협약식 개요. 끝.

붙임

내용물 분야 상생협력을 위한 협약식 개요

1. 행사개요

□ 일시 및 참석자

- 체결일시 : 2019. 4. 16(화) 14:00~14:30
- 체결장소 : 춘천시청 시장실
- 참석자(10)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춘천시장
 - 한국수자원공사(5): 사장, 강원본부장, 소양강지사장 등 5인
 - 춘천시(5): 시장, 기획행정국장, 상하수도사업본부장 등 5인

2. 공동협력 내용

□ 협약의제(공동 전담반 구성)

- 소양강댐의 가치 제고를 통한 친환경 활용 방안
- 춘천시 지방상수도 시설 현대화 사업 및 지방상수도 관리 기술지원
- 춘천시 관내 호소, 하천의 수질 보전대책
- 춘천시 산간 격오지 가뭄철 급수대책 지원
- 수열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 조성사업
- 기타 양 기관이 합의하여 정한 사항

9

고용노동부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지원을 위한 「중앙 컨설팅팀」 출범

- 정규직 전환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컨설팅) 제공, 갈등 조정·중재 -

-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4월 17일(수)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시 중구 소재)에서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을 지원할 「중앙 컨설팅팀」 발족식을 개최하였다.
 - ▲ 일시·장소: 2019.4.17.(수) 10:30~11:40, 서울청 5층 컨벤션룸
 - ▲ 참석자: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 공공노사정책관, 중앙컨설팅팀 등 30명 내외
- 이번 「중앙 컨설팅팀」은 정규직 전환과 관련된 경험과 전문성을 가진 교수, 변호사, 노무사 등 민간 전문가 33명으로 구성하여, 1·2단계 정규직 전환을 중심으로 운영한다.
- 「중앙 컨설팅팀」은 2017년 7월부터 공공기관의 임금체계, 정년, 채용 방법 등 정규직 전환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컨설팅)을 해왔으며, 정규직 전환과 관련된 현장의 혼란이나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갈등을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방법으로 조정 및 중재하는 역할을 해왔다.
- 한편 올해의 경우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책*에 따라 1·2단계가 상당 부분 완료되었고 3단계가 새로 추진되는 점을 고려하여, 1·2단계 정규직 전환을 중점으로 하는 「중앙 컨설팅팀」과 3단계 민간위탁을 중심으로 하는 「권역별 컨설팅팀」으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 ▲ (1단계) 중앙행정기관, 자치단체, 교육기관,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 ▲ (2단계) 지자체 출자·출연기관, 공공기관·지방공기업 자회사
 - ▲ (3단계) 민간위탁기관

- 이번 4월말까지 3단계 민간위탁에 대한 공공기관의 상담(컨설팅) 신청을 받고 있으며, 전문가 심사 등을 거쳐 5월초부터 「권역별 컨설팅팀」을 구성하여 지원할 예정이다.

구 분	'18년		'19년
중앙 컨설팅팀	<1·2단계> 비정규직 규모가 큰 현안사업장 (31개소)	→	<1·2단계> 2018년 선정기관 (18개소) 및 2019년 신규 기관 (6개소)
권역별 컨설팅팀	<1·2단계> 상담(컨설팅) 효과 및 파급효과가 큰 기관 (26개소)	→	<3단계> 신규 기관 (접수 중)

- 임서정 차관은 “정규직 전환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정규직 전환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상담(컨설팅)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강조하였다.
- 또한 “남아있는 정규직 전환 결정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여 공공기관의 정규직 전환이 연차별 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붙임] 1. 「중앙 컨설팅팀」 발족식 개요
 2. 「중앙 컨설팅팀」 구성 현황

붙임1

「중앙 컨설팅팀」 발족식 개요

1 행사 개요

- 일시·장소: 2019.4.17.(수) 10:30~11:40, 서울고용노동청 5층 컨벤션룸
- 참석자: 차관, 공공노사정책관, 중앙컨설팅팀 등 30명 내외

2 세부 일정

시 간		세 부 내 용	비 고
10:30~10:35	(5')	▶ 개회 및 참석자 소개	사회자
<1세션>		1. 발족식	
10:35~10:40	(5')	▶ 인사말씀	
10:40~10:50	(10')	▶ 2019년 컨설턴트 위촉장 수여	
<2세션>		2. 제1차 회의	
10:50~11:05	(15')	▶ 정책방향 설명 - 정규직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 2019년도 컨설팅 사업 운영계획	공공기관 노사관계과장
11:05~11:40	(35')	▶ 토의 등 간담회	정홍준 박사 주재
11:40		▶ 마무리 및 폐회	

붙임2

「중앙 컨설팅팀」 구성 현황(24개소, 33명)

연 번	기 관 명	컨 설 톤 트
1	김포시	김경식 노무법인 해밀 노무사
2	한국전력	김기선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이병훈 중앙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채준호 전북대학교 경영학부 부교수
3	한전 KPS	이영호 퍼포먼스앤러닝 박사
		정승국 중앙승가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4	과기부 출연연 (생명연, 생기원, 화학연)	이장원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박현국 노무법인 유앤 노무사
5	국방과학연구소	오계택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채준호 전북대학교 경영학부 부교수
6	한국개발연구원	최효철 대전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엄승섭 청주공인노무사사무소 노무사
7	서울대병원	이정희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
		김가람 법률사무소 내일 노무사
8	충남대병원	이정희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
9	부산대병원	김상호 경상대학교 법학과 교수
		김기승 부산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10	강원대학교병원	이희진 HR디자인연구소 대표(노무사)
11	성남시의료원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
		손기영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 상임연구위원
12	도로공사	남우근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정책연구위원(노무사)
13	마사회	이정훈 서울시 감정노동종사자 권리보호센터 소장
		송영욱 한국능률협회컨설팅 공공컨설팅본부장
		김용진 노무법인 하이에치알 대표 노무사

연 번	기 관 명	컨 설 터 트
14	강원랜드	김용진 노무법인 하이에치알 대표 노무사
		진선미 노무법인 휴먼플러스 노무사
15	석유공사	남우근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정책연구위원(노무사)
		신재욱 FM어소시에이츠 컨설팅 대표
16	가스공사	임주환 법률사무소 종로 변호사
		권 혁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7	한국원자력의학원	박준우 노무법인 인재경영컨설팅 노무사
		이주영 노무법인 종로 노무사
18	한국산업단지공단	황재철 노무법인 아너스 노무사
19	대한법률구조공단	황재철 노무법인 아너스 노무사
		김세종 노무법인 함께 노무사
20	한국수력원자력	이영호 퍼포먼스엔러닝 박사
		권 혁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1	사립학교 교직원연금공단	김중태 노무법인 정 노무사
22	(재)대전테크노파크	최효철 대전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엄승섭 청주공인노무사사무소 노무사
23	전쟁기념사업회	이원희 노무법인 하이에치알 노무사
24	성남시청소년재단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
		손기영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 상임연구위원

10

여성가족부

폭력피해 이주여성, 전문 상담 서비스 받는다

- 여성가족부, 폭력피해이주여성상담소 3개 기관 선정 -

□ 앞으로 가정폭력, 성폭력 등 폭력피해를 입은 이주여성들에게 상담과 임시보호, 의료·법률지원 등 전문적인 서비스가 제공된다.

□ 여성가족부(장관 진선미)는 폭력피해 이주여성들의 한국사회 정착 및 인권보호를 위하여 '폭력피해이주여성상담소 운영기관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폭력피해이주여성상담소」 3개 기관*을 선정했다.

* 3개 기관 : 대구(대구이주여성인권센터), 인천(인천여성의전화), 충북(충북이주여성인권센터)

○ 이주여성 상담소는 폭력피해 이주여성들에게 그들의 모국어로 전문적인 상담 및 통·번역 서비스는 물론, 폭력피해 회복에 필요한 의료·법률 지원과 체류기간 연장 등 권리보호를 위한 정보를 제공한다.

* 이주여성은 264,681명('17.11월 기준, 행정안전부)이고, 가정폭력 피해를 경험한 이주여성 3명중 1명(36.1%)은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됨(국가인권위원회, '17년 조사결과)

○ 이와 함께, 이주여성 상담소는 이주여성들의 다양한 언어적 특성과 법률·의료적 수요를 감안, 통역·번역이 가능한 이주여성 및 내국인으로 구성된 '통번역 지원단',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로 구성된 '법률지원단', 의사 등 의료전문가로 구성된 '의료지원단' 등을 운영하여 폭력피해 이주여성의 언어소통, 법률적, 의료적 어려움을 도울 계획이다.

- 이주여성 상담소는 폭력피해 이주여성에 대한 상담을 강화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제3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18.2월) 및 「가정폭력 방지대책」(‘18.11월)의 후속조치에 따라 설치·운영된다.
- 그동안 다누리콜센터, 가정폭력상담소,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등에서 폭력피해 이주여성에게 초기상담 및 정보제공 서비스를 지원 하였으나, 이주여성 전문 상담인력의 부족으로 어려움이 있었다.
 - 이번 이주여성 상담소 신설로 이주여성이 폭력피해 후에 겪는 심리·정서적 충격, 생활·체류 불안정 등 복합적인 문제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상담·지원을 통해 이주여성의 한국사회 정착지원과 권리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여성가족부는 ‘19년 상반기에 3개소를 신설하고, 연내에 2개소를 추가로 선정하여 운영지역을 확대할 계획이다.
- * 운영기관에는 국비와 지방비를 합쳐 1개소 당 최대 2억 7천 3백만 원까지 지원
- 한편, 여성가족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와 자립을 위한 쉼터(28개), 공동생활가정(3개) 및 자활지원센터(1개)를 운영하고 있다.
- 최창행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장은 “폭력피해 이주여성 상담·지원은 이주여성의 인권과 권리증진을 통해 우리사회의 인권감수성을 한 단계 성숙시켜 모든 사람이 존중받으며 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로 발전하는데 기여할 것이다”라며,

- “신설되는 이주여성 상담소가 폭력피해 이주여성을 위한 전문 상담소로서 지역사회에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 지자체 및 시민단체와 적극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11

국토교통부

15일부터 어린이·고령자 맞춤형 ‘찾아가는 교통안전 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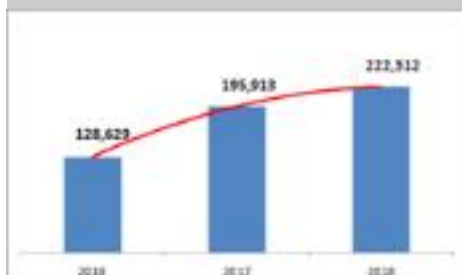
- 지난 3년간 유치원·노인복지관 등 찾아 54만 명 교통안전교육 실시 -

- ◆ 지난 3년간 유치원·초등학교·노인복지관 등 찾아 54만 명 교통안전교육 실시
- ◆ 올해는 유치원(677), 초등학교(752), 노인복지관·경로당(3,709)…총 5,138곳
- ◆ 어린이는 놀이형 카드게임·가상현실(VR)·만화 영상 등 참여형 교육
- ◆ 고령자운전·안전보행 등 고령자 교육은 전년대비 54% 확대 추진
- ◆ 교통안전 습관 생활화 위한 지속 홍보·고령자 대상 교육 확대 추진키로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및 한국교통안전공단 등과 함께 어린이 및 고령자를 대상으로 놀이형 교재·VR 등을 활용한 ‘연령별 맞춤형 교통안전교육’을 오는 15일부터 실시한다.

○ 어린이·고령자 교통안전교육을 위해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과 대한노인회 등과 협약을 체결('16.7.)하고, 지난 3년간 유치원, 초등학교, 노인복지관 등을 직접 방문하여 약 54만 여명에 대해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였다.

< 연도별 맞춤형 교통안전교육 실적 >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합계
어린이	41,960	107,284	168,699	317,943
고령자	86,669	88,629	53,613	228,911
합계	128,629	195,913	222,312	546,854

□ 올해('19년)도 연령별 특성을 고려하여 유치원(677개원) 및 초등학교(752개교), 노인복지관 및 경로당 등 (3,709개소) 5,138개 기관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맞춤형 교통안전교육을 계획하고 있다.

○ 특히, 고령자 교통사고 사망자는 감소추세이나 점유율은 증가*하고 있어 고령자에 대한 맞춤형 교통안전 교육을 전년대비 대폭 확대('18년 2,408개소 ⇒ '19년 3,709개소, 전년대비 54% 증가)하여 운영한다.

* 고령자 사망자 점유율 : '14년 1,815명(38.1%) → '15년 1,814명(39.2%) → '16년 1,732명(40.4%) → '17년 1,767명(42.2%) → '18년 1,682명(44.5%)

- 고령자 교육은 3,709개소의 노인복지관 및 경로당 등을 방문하여 고령자의 신체변화 등에 따라 실제로 빈번하게 발생하는 교통사고 사례 및 위험성 등을 블랙박스 및 실험영상을 통해 공유하고,

- 안전하게 횡단보도 이용하는 방법 및 도로 상황별 안전한 보행 방법, 전좌석 안전띠 착용, 졸음운전 예방 및 대중교통 이용하기 등의 고령운전 및 보행에 대한 안전교육을 소통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 어린이 교육은 교육부의 협조를 얻어 유치원 677개원 및 초등학교 752개교 등 1,429개교(원)를 선정·방문하여 교육을 진행하게 된다.

- 유치원 교육은 원생들이 교통안전습관을 자연스럽게 체득할 수 있도록, 스티커북 및 보드게임 등의 놀이형 교재를 활용한 참여형 교육으로 진행한다. 올해에는 교통안전에 대한 어린이의 관심과 몰입도 향상을 위해 만화영상을 신규 제작하여 활용한다.



- 초등학생은 등·하교 시 위험사례 예방법 등을 놀이형 카드게임 등을 통해 스스로 느끼도록 하고 보행안전 교육용 가상현실(VR) 체험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 청소년 교육은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의 위험성, 이륜차 교통안전 등의 영상을 전국 중·고등학교(5,573개교)에 배포하고 SNS(Social Network Service), 유튜브(You Tube) 등을 통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한다.

□ 국토교통부 김상도 종합교통정책관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교통안전 습관이 생활화 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 지속적인 홍보와 교육이 필요하다”면서,

- 특히, “교통사고 사망자 점유율이 증가하고 있는 고령자에 대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붙임1

맞춤형 교통안전 교육 추진계획

단계	구 분	내 용	일 정
전문강사 인력 양성	강사 전문성 강화 교육	- 미취학 어린이, 초등학생, 고령자 찾아가는 교육 강사 전문성 강화 교육	'19. 2
	지역별 연구 강의	- 지역별 강사 대상 연구 강의 실시 및 강의 영상 공유	'19. 3
	교육 모니터링	- 교육 현황 점검 및 피드백	'19. 4~11
미취학 어린이	대상 선정	- 미취학 어린이 교육 대상 선정	'19. 2~4
	교보재 제작	- 교육교재 제작(스티커북)	'19. 1~4
	가정통신문 제작 및 배포	- 부모님과 함께 생각하는 교통안전 365일 * 학부모가 함께 할 수 있는 교재 개발	'19. 1~12
	찾아가는 교육	- 교보재 활용 놀이식 교육 실시 * 수료 어린이 수료카드 교부	'19. 4~12
	이벤트	- 교육 수기 공모 및 우수유치원 선정 등	'19. 10~12
초등학교 어린이	대상 선정	- 어린이 교육 대상 선정	'19. 2~4
	교보재 제작	- 놀이형 교보재 제작	'19. 4
	찾아가는 교육	- 시청각, 강의식 및 놀이형 교육 실시	'19. 4~12
		- VR 활용 보행안전 체험식 교육 실시	'19. 4~12
	이벤트	- 교육 수기 공모 및 우수유치원 선정 등	'19. 10~12
청소년	교통안전교육 영상 및 강의교안 제작·배포	- 교육부 협조를 통해 중·고등학교 및 관계기관 영상, 강의교안 배포 * 보행 교통안전, 이론차 교통안전 - 청소년 교통안전교육 영상 활용(기제작)	'19. 4
고령자	대상 선정	- 고령자 교육 대상 선정	'19. 2~4
	찾아가는 교육	- 시청각 및 강의식 교육 실시	'19. 4~12

붙임2

연령별 맞춤형 교통안전교육 대상 현황

☐ 어린이

시 도	어린이		시 도	어린이	
	유치원	초등학교		유치원	초등학교
서울	65	75	부산	30	38
대구	30	28	인천	30	30
광주	25	20	대전	20	18
울산	15	15	세종	7	5
경기	170	155	강원	30	45
충북	25	33	충남	40	50
전북	40	52	전남	40	53
경북	50	58	경남	50	62
제주	10	15	계	677	752

※ 유치원 및 초등학생은 교육부 협의하여 대상 학교 선정

☐ 중·고등학생

구 분	중학교	고등학교					계
		일반	특목고	특성화고	자율고	소계	
학교 수	3,213	1,556	155	491	158	2,360	5,573
학생 수	1,381,334	1,193,562	67,960	274,281	133,896	1,669,699	3,051,033

☐ 고령자

시 도	노인시설			시 도	노인시설		
	노인복지관	노인대학 및 경로당	소계		노인복지관	노인대학 및 경로당	소계
서울	81	129	210	강원	14	161	175
부산	26	109	135	충북	18	212	230
대구	15	70	85	충남	16	304	320
인천	19	66	85	전북	21	349	370
광주	9	66	75	전남	25	475	500
대전	7	38	45	경북	18	427	445
울산	14	31	45	경남	21	389	410
세종	0	25	25	제주	2	23	25
경기	58	471	529	계	364	3,345	3,709

* 노인복지관은 전수 시행하고, 노인대학 및 경로당(66,960개소)은 희망 기관 3,345개소에 대해 시행

옥빛 봄바다 넘실... 체험거리 가득한 강원도 어촌여행

- 해수부·어촌어항공단, 강원도 지역 추천 어촌체험휴양마을 5선 소개 -

일상의 여유를 만끽할 수 있는 주말 나들이를 계획하고 있다면 강원도로 떠나보자.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와 한국어촌어항공단(이사장 최명용)은 싱그러운 봄 바다를 한껏 느낄 수 있는 강원도 어촌체험휴양마을 5곳을 소개한다.

삼척의 장호어촌체험휴양마을은 사계절 선상낚시가 가능한 곳으로, 힘 좋은 가자미 등을 잡아 그 자리에서 바로 회를 떠먹을 수 있다. 또한 쫄깃한 육질을 자랑하는 제철 문어는 다른 양념이 필요 없을 정도로 별미다. 5월에는 인근에서 장미축제가 열려 연인과 함께 하는 나들이 코스로도 좋다.

유명 관광지가 가득한 속초에는 장사어촌체험휴양마을이 있다. 이곳에서는 50명 이상의 인원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맨손 물고기잡기 체험이 가능해 단체여행지로 제격이다. 또한 체험 후에는 청어, 송어 등 다양한 어종을 맛보며 지친 몸과 마음을 달랠 수 있다. 주변에는 속초시립박물관, 수산시장, 아바이마을 등 지역 특색이 돋보이는 관광지가 즐비해 있어 알찬 여행이 가능하다.

고속철도 개통으로 수도권과 더 가까워진 강릉 소돌어촌체험휴양마을은 1박2일로 주말여행을 떠나기 좋다. 봄철에는 살이 통통하게 오른 자연산

도다리를 현지에서 회로 즐길 수 있고, 문어, 해삼, 멍게, 홍합 등 바다향이 가득 배인 신선한 해산물도 맛볼 수 있다. 푸른 바다 위에서 즐기는 투명카누 체험은 재미와 낭만을 함께 선사하며, 근처에는 ‘자식을 원하는 부부들이 기도하면 소원을 성취한다’는 전설이 있는 소돌아들바위(소원바위)와 드라마 ‘도깨비’ 촬영지인 영진 해변 등 가볼만한 곳들이 많다.

양양군 남애어촌체험휴양마을에서는 실내 스킨스쿠버 체험이 가능하다. 수심 5m의 잠수풀장(39.65㎡)과 함께 압축기, 공기탱크, 잠수복 등 다양한 잠수장비가 구비되어 있어 안전하게 체험을 즐길 수 있다. 또한, 자연산 회, 멍게, 해삼부터 고소한 감칠맛이 일품인 임연수구이까지 다양한 먹거리도 준비되어 있다.

양양군 수산어촌체험휴양마을은 특산물을 활용한 이색체험이 가득해 아이가 있는 가족여행지로 인기다. 통통한 제철 문어로 만드는 문어빵 만들기, 미역쿠키 만들기 체험은 평소 수산물을 싫어하던 아이들도 즐겁게 참여할 수 있다. 이 외에 투명카누, 요트승선 체험도 가능하며, 마을 인근 식당에서는 개운하고 달달한 찌복(비단조개)탕, 새콤달콤한 가자미 물회 등도 맛볼 수 있다.

장묘인 해양수산부 어촌어항과장은 “강원도 지역 주민들은 지난 4일 발생한 대형 산불로 관광객들의 발길이 뚝 끊길 것을 염려하고 있다.”라며, “주말 나들이를 계획하고 있다면 맛과 멋, 체험거리가 가득한 강원도 어촌마을에 방문하셔서 강원도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께서 힘을 모아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참고1

강원도 지역 추천 어촌체험휴양마을 5선

지역	마을명	먹거리	체 험	인근관광지
삼척	장호 어촌체 험 휴양마을	문어	선상낚시	5월 장미축제, 해신당 공원
속초	장사 어촌체 험 휴양마을	청어, 방어, 숭어(체 험 후 시식)	맨손 물고기잡기 체 험(50명 이상), 배 낚시, 파워보트	속초 시립박물관, 속초수산물시장, 아바이마을
강릉	소돌 어촌체 험 휴양마을	회(자연산 도다리, 세꼬시), 문어, 해삼, 멍게, 홍합밥	선상낚시체 험, 투명카누체 험, 바리스타체 험, 조개공예	소돌해수욕장, 아들바위공원, 영진 해변
양양	남애 어촌체 험 휴양마을	임연수 구이, 문어, 멍게, 해삼, 자연산회	스킨스쿠버(실내), 낚시어선 승선체 험 (최소4인)	남애항, 휴휴암, 하조대
	수산 어촌체 험 휴양마을	째복탕, 활어회, 가자미 물회	투명카누, 요트승선, 문어빵, 해초비누, 미역쿠키 만들기	수산항, 낙산사, 양양 서피비치

참고2

강원도 지역 추천 어촌체험휴양마을 5선 사진자료

		
삼척 장호마을 전경	배낚시체험	문어
		
속초 장사마을 전경	배낚시체험	자연산 회(체험 후 시식)
		
강릉 소돌마을 전경	투명카누체험	섬밥(홍합밥)
		
양양 남애마을 전경	어선타기 체험	자연산 회
		
양양 수산마을 전경	문어빵 만들기 체험	째볶요리